

아름다움과 안식: 예술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 고찰 Beauty and Sabbath: a Theological Study on the Role of the Arts

Esther R. Crookshank
서나영 (Na Young Seo)

Abstract

This study argues that the need of beauty for human is ultimately fulfilled by God in the form of peace here on earth and ultimately heaven. It specifically suggests that memorializing God's creation of the Sabbath builds the foundation of aesthetic theory. Sabbath was given to humanity before the fall of humanity into sin (Gen 1) and as a commandment (Exod 20, Deut 5) that preceded the entry into the Promised Land; it is a sign of the delights awaiting believers in the new heavens and earth. In the keeping of the Sabbath, therefore, believers celebrate the fact that God's works of creation and redemption are finished.

As an aspect of Sabbath, beauty has the analogous meaning of foreshowing the glory of God as a break from the tyranny of this world. The experience of both the Sabbath and beauty are future-directed and lead one beyond his or herself to the transcendent and the eschatological. Christians contemplate the complex beauty of his works and are refreshed in communion with him, and they delight in the splendor of God's beauty as they anticipate eternity spent with him.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provide a right understanding of beauty and the arts through an observance of the Sabbath. For this reason, a theology of Sabbath will be observed in the first part. For the following part, a biblical and theological examination of beauty and art, its essence, and the roles in this world as a facet of the Sabbath will be given.

Key Words: theology of beauty, the Sabbath, aesthetic theology, creation, transcendence of art

I. 서론

성경은 예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 하셨으며,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느끼고 들으며, 예술을 창조하고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말한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보기에 좋았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찬란함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함으로 이를 바라본다. 그러나 현 시대는 도덕적으로 미학적으로 길을 잃은 듯하다. 현대의 예술이 더 이상 아름다움과 미적가치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리 낯선 일이 아니다. 예술이 우상시 되고, 아름다움을 의도적으로 멀리한 추한 형태에 미적 기준과 가치를 두며, 도덕과 상관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로 여겨지고, 기독교의 윤리와 아름다움의 의미와는 멀어지고 있다.

모더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러한 '예술을 위한 예술(art for art's sake)'¹⁾의 흐름은 4차 산업혁명 시대²⁾를 맞으며 그 가치와 기준을 정의하기에도 벅찰 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시작되며 인간의 자율이 예술의 모든 것이 되었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미술, 음악, 비디오 등 엔터테인먼트와 문화컨텐츠를 창작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실제로 인간의 창의력을 뛰어넘은 인공지능과 딥러닝(Deep Running) 기술³⁾이 인간의 마음을 깊이 터치하는 감동적인 예술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4차 산업시대의 순수예술은 이미 자원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1) '예술을 위한 예술'은 19 세기 초반부터 시작된 프랑스 슬로건 인 'l' pour l' art'를 표현한 것이며, 그 어떤 교훈적, 도덕적 또는 공리주의적 기능과도 분리되어 있어야 예술의 본질적 가치가 있고, 이것이 유일하게 '진정한' 예술이라는 철학적 표현이다. 1835년에 Théophile Gautier(1811-1872)에 의해 저술된 책 <Mademoiselle de Maupin>의 서문에서 이 구절이 처음으로 표현되었고, Victor Cousin, Benjamin Constant, Edgar Allan Poe의 작품에 등장하며 본격적으로 슬로건이 되기 시작했다(Poe, 1850).

2)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창립자 겸 집행 위원장인 슈밥(Klaus Schwab)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고 일하고 서로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슈밥은 4차 혁명과 이전의 혁명을 구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그것은 속도, 범위, 그리고 시스템 영향으로, (1)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움직이며, (2)몇 개가 아닌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3) 마지막으로 이러한 혼란의 폭과 깊이는 생산, 관리의 전체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네 번째 산업 혁명이 어떻게 전개 될지 아직 볼 수도 없는 속도이지만, 인공지능(AI), 사물의 인터넷(IoT), 빅 데이터, 3D 인쇄, VR(Virtual Reality), 생명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및 양자 컴퓨팅 등이 4차 산업혁명을 특징 짓는다(Schwab, 2016).

3) 인간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게 입력하여 기계학습을 증강시키는 '심층학습'을 의미한다. 데이터나 복잡한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 또는 기능을 요약하는 작업)를 시도하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Bengio, et al, 2013).

없는 순수예술에 투자를 망설이는 것을 바라만 보아야 하는 암울한 시대라 결론짓는다(김선영, 2018: 16,19).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많은 우려 속에,⁴⁾ 예술은 이제 창의성 또는 예술적 창조성의 이름으로 4차 산업혁명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주목되고 있는 능력 중 하나로,⁵⁾ 기업의 조직 내의 실용성과 창의적인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예술기반 구상(Application Binary Interface)의 형태로 쓰여지고 있다(Giovanni Schiuma, 2017). 그러나 반델리(Andrea Bandelli)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서 예술의 역할을 네 가지 분야에서 관찰한 후, “디자인의 아름다움은 의심스러운 현실을 은폐한다”고 결론짓는다.⁶⁾ 필자의 눈에 는 결국 4차 산업혁명이 그토록 지켜내려는 인간의 자율과 예술적 창의성이 정작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인간은 알지 못한다.

북미 베네딕트 신학자인 조앤 치티스터(Joan Chittister)는 이 기술의 시대에 아름다움의 상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고도로 기술적인 세계에서 가장 미흡한 것은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 대신 우리는 효율성에 가치를 둔다. 우리는 예술을 덧입은 기능주의를 원한다. 우리는 쓰레기를 만들고, 키치(kitsch)⁷⁾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들에서의 올바른 비례, 우주 속 우리 삶의 조화, 보이는 것 안에 있는 진실로 설명되는 아름다움은 우리를 피한다. 우리는 좋은 나무 위에 페인트칠을 한다. 우리는 야생 꽃보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꽃을 선호한다.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Pietà⁸⁾를 재현한다. 우리는 천박하고 포장된 것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진실한 것들을 포기한다. 우리 인간들은 진부함속에 빠져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과 의무의 상실은 우리가

4) 이 4차 산업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술 발전이 실업률 증가, 국가 및 지역 내 공동체들의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거라 예상한다(Schwab, 2016).

5)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최근 보고서인 “제 4 차 산업혁명을 위한 미래의 직업, 고용, 기술 및 인력 전략”은 세계 유수의 글로벌 고용주가 제공하는 최고 인력 및 전략 담당자의 정보를 토대로 2020년에 필요한 10대 기술을 이와 같이 나열한다. 복잡한 문제 해결(Complex problem solving),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력(Creativity), 인력 관리(People management), 다른 사람들과의 협조(Coordinating with others), 감성 지능(Emotional intelligence), 판단과 의사 결정(Judgement and decision making), 서비스 방향(Service orientation), 협상(Negotiation), 인지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 으로 정리된다(Watson, 2018: 121).

6) 반델리는 ‘기술격차 축소,’ ‘기술에 관한 신뢰,’ ‘프로토타입에 예술과 디자인 포함하기,’ ‘건강의 미래형성’의 네 가지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속 예술의 역할과 그로 인한 우려를 관찰한다(Bandelli, 2018).

7) 질 낮은 예술품, 가치없는 물건

8) The Pietà(1498 - 1499)는 바티칸 시의 St. Peter’s Basilica에 보관되어 있는 미켈란젤로의 르네상스 양식의 조각품이다(Pietà, <http://en.wikipedia.org/wiki/Pietà>, accessed May 31, 2018).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아름다움이 없이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놓친다(Chittister, 2001: 40).

치티스터가 주장하듯이 기독교 신학에서 ‘아름다움’과 ‘신앙’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나 에드워드 팰리(Edward Farley, 2001: 6)는 “세상 문화에서 아름다움의 쇠퇴 또는 결핍은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안에서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아름다움에 관한 개념적 이해는 결코 복음주의 기독교 철학 또는 신학에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지 않았다(Walton, 1988: 68-69). 슈밥(Schwab)은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4차 산업으로 점점 양극화 되어가는 세상의 더 큰 종교적 소양은 필수적이라 결론짓고 종교와 윤리와의 연합을 강조했다(Schwab, 2016), 세상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예술적 아름다움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한다. 플라톤(Plato, 304e)은 “아름다운 모든 것은 어렵다”는 오랜 속담을 인용하며 아름다운 삶을 찾으려 노력했다. 아름다움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것은 마일즈(Margaret R. Miles)가 경고했듯,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에, 무엇이 아름다운가를 잘못 판단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Miles, 1997: 47-49). 이 시대의 슬픈 현실을 감안할 때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예술과 아름다움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름다움의 목적과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신학이 매우 중요하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narrative)로 설명되어 질 수 있고, 창조와 타락과 구속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포함한다. 특히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인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already but not-yet)” 개념은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칼슨(D. A. Carson)은 “안식일은 인류 역사의 목표이자 창조에서 완성까지의 큰 움직임의 뼈대로 볼 수 있다”고 그 중요성을 언급했다(Carson, 2000: 199). 최초의 안식일은 인간의 타락 이전이고, 우주의 생성 리듬의 일부이며,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념하고 그의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중요한 기관이 된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 고된 일에서 벗어나 쉬를 얻는 날이며, 창조주의 창조를 기념하고 축하하고, 노예생활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인류에게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맛 볼 수 있는 즐겁고 아름다운 날이다.

이와 유사하게, 예술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고난과 압제에서 벗어나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명한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1788-1860)는 미학적 경험을 묘사할 때 “Ixion⁹⁾의 바퀴가 멈

9) Ixion은 그리스 신화의 등장인물로, 존속살인을 하고 헤라를 강간하려 시도하여 제우스에 의

추지 않을 때,” 즉 끝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고통 속, “기꺼이하는 형벌 노역의 안식일”이라 표현했다. 예술이란 고통의 세계에서 잠시나마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는 신으로부터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 아름다움이라는 것의 경험은 이 땅에서 누리는 평화와 앞으로 임할 천국을 통해 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기독교 예술인들은 예술을 단순하게 고통을 줄여줄 마취제가 아닌,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는 미적 경험을 소망하고 그들의 신앙 속에 구현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 미적 이론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구축한다고 주장한다. ‘안식일’과 ‘아름다움의 경험’은 미래 지향적이며, 그 종말론적 소망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타나고, 창조주와 그의 아들과 성령의 구속사역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 할 수 있음을 관찰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문화 속에서 아름다움을 정의할 수 있고, 예술의 길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진실을 품은 예술가로 길로 가는 미적 이론을 제시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안식일 신학이 창조와 구속을 중심으로 관찰되어질 것이며, 두 번째 장에서는 안식일의 핵심 교리에 기초하여 미학 신학과 예술의 역할이 연구되어질 것이다.

II. 안식일 신학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며 자신의 창조와 애급의 종된 생활로부터의 구출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다(출 20: 2, 신 5: 15). 그러므로 안식일에서의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안식’과 ‘구속의 안식’을 의미하고, 이 두 가지 형태의 안식은 안식일 법의 양식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클라인(Meredith Kline)은 안식일의 목적과 이의 종말론적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언약의 삶 안식년 주기는 신성한 행동의 특징인 완성 원리를 상징한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기뻐하시고, 휴식하신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안식일의 원래 모형을 창조 때의 완성 패턴의 전시임을 나타낸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구속의 표명을 언급하는데, 신의 업적은 하나님의 택한 자도 자신의 안식을 취하게 하심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애급의 속박에서 구속받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상속 받은 백성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임명받았다(출 31: 13-17). 안식일에 대한 신명기의 구속사역의 진행 관점 해석을 유지하는 신약의 중심은,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하는 구세주의 부활하신 승리이다(Kline, 2006: 63).

해 지옥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회전 바퀴에 매달리는 형을 받았다(Schopenhauer, 2000: 220).

클라인이 주장하듯이, 안식일은 억압으로부터 해방의 상징으로, 창조를 기억함으로써 안식과 평화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종말론의 강력한 예표라 할 수 있다. 또한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밀그램(Abraham Milgram)은, 유대인의 안식일 전통에서 안식일은 완전한 휴식의 날 뿐만 아니라 잔치의 날, 즉 진정한 기쁨의 날로 묘사된다고 강조한다(Milgram, 1944: 219). 안식일은 안식과 기쁨으로 이스라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표적’ 또는 ‘통로’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속한 영원한 안식의 그림을 주셨고, 기뻐하시며, 그의 나라에 들어서기까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뜻한다.

안식일의 신학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많은 신학적 교리와 안식년의 실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광대하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기본 목적, 즉 창조(creation)와 구속(deliverance from sin)의 기념으로 초점을 맞추어, 태초의 창조로부터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종말론적 비전’과, ‘하나님의 구속사역,’ 그리고 ‘창조의 아름다움 안의 즐거움과 기쁨’의 관계가 안식일의 잔치의 개념으로 관찰되어질 것이다.

1. 안식일과 창조

안식일의 의미와 조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왜 쉬셨는지 이해해야만 한다. 시내산에서 안식일 법을 주실 때가 안식일을 기원이라고 추정하기 쉬우나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은 새로운 것으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 조엘 비키(Joel Beeke)는 안식일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관찰되어진 사실임을 주목했다(Beeke, 2006: 113). 안식일은 단지 모세의 의식이 아니라 역사의 시작과 함께 제정되었고, 그 기원은 천지창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의 타락 이전의 시간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안식과 이에 대한 리듬을 제정하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키는 “안식일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제도의 하나”라고 강조한다(Beeke, 2006: 113).

그러므로 안식일은 창조 직후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와 함께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정되었고, 이 날이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출 20: 10) (Beeke, 2006: 112-13). 창조주는 일곱째 날에 쉬셨고, 자신이 쉬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쉬라고 명령하며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쉬를 상기시키며 일곱 번째 날마다 휴식을 취하고 그와의 언약관계를 지키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바람과 그들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언약을 세우신 것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에 대한 기쁨(joy)과 즐거움(delight)을 표현한다. 안식일에

유대인과 카톨릭,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능력을 기념하는 ‘안식일의 아름다움’을 기념하며 축하한다. 여섯째 날 끝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31)”라고 말씀하시고, 이레 쟤 되는 날에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아름다움과 그것들의 완성을 즐거움으로 바라보셨다. 즉, 창조주는 안식일에 휴식함으로써 완성 된 창조물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인해 기쁨을 얻으신 것이다.

로리(Richard Lowery)는 창세기를 여는 창조에 대한 설명 가운데 이어지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는 “독자로 하여금 기쁨과 찬양으로 동참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Lowery, 2000: 81). 이 안식일의 기쁨과 관련하여 앨런더(Dan, Allender)는 ‘메뉴하(מנוחה)’라는 히브리 단어를 소개한다. 앨런더는 많은 유대인 주석가들이 창조주가 일곱 번째 날에 메뉴하를 창조했다는 것을 주목한다(Allender, 2009: 28). 메뉴하는 ‘휴식’을 위한 히브리 단어로 허셸(Abraham Heschel)은 이 단어를 “평화와 조화와 같은 행복과 고요와 동일하다... 즐거운 휴식, ‘평온함’ 또는 ‘즐거움’으로 번역 될 수 있다... 투쟁과 싸움이 없고 두려움도 없고 혐오감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한다(Heschel, 2005: 23). 이 메뉴하에 있어 하르트(David B. Hart)는 이렇게 서술한다.

창조의 존재는 하나님의 기쁨이며 창조의 아름다움은 창조되지 않은 빛의 빛을 드러낸다... 창조는 오직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지식의 삶에 매달려있는 화려한 광채이다. 그것은 영원의 빛나는 영광의 표면이며, 그 가장 깊은 진리는 신성한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한 미적 일치이다... 그것은 창조를 구성하는 즐거움이며, 그리하여 기쁨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올바로 볼 수 있으며, 그 안에 새겨진 문법을 이해할 수 있다. 오직 사랑스러운 창조물의 아름다움에서, 즉 창조물이 실제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봄으로, 창조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Hart, 2004: 252-53).

하르트는 창조는 창조주의 영광을 반영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유일한 길은 ‘즐거움’을 통해서라고 강조한다. 그의 백성은 경외와 기쁨으로 창조 앞에 서야함을 나타낸다. 앨런더의 표현처럼, 창조주의 최고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이 뒤로 서서 그 자신의 창조물에 놀랐던 것처럼 기쁨의 아름다움을 맞보아야 한다(Allender, 2009: 44).” 이렇게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창조물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약속된 영적 기쁨이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

와의 입의 말씀이니라(사 58: 13,14).

마지막 창조에 관한 세 번째 고찰은, 안식일의 내포된 종말론적 구속사역의 의미이다. 존 프레임(John Frame, 2008: 529)은 “안식일은 종말론을 처음으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날에 쉬므로 약속 된 ‘영원한 안식의 그림’을 그리셨다는 것이다.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안식의 날은 매 주의 약속이 되었고, 죄인들에게 구속과 안식을 제공 할 것이라고 상기시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창조의 6일을 연구하며 클라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무엇보다 가장 명백한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세상의 성전의 완성을 축하하는 날로서, 안식일은 창조주의 이름을 ‘완성자(consummator)’라고 선언한다. 일곱째 날에 도달하여 완성하는 창조주가 되려고, 또한 창조주가 존재하는 안식일이 되기 위해, ‘처음’이라는 이름과 함께 ‘마지막’이라는 이름을 함께 지니는 것이다(Kline, 2006: 22).

따라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과 관련된 ‘이미(already)’의 측면과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것에 관한 “아직 아닌(not-yet)”측면이 함께 존재한다(Frame, 2008: 529). 몰트만은 이에, “하나님의 초기 창조, 역사적 창조, 그리고 완벽한 창조”를 구별함으로써 창조의 개념을 사용하여 종말론을 발전시켰다. 몰트만은, 이 일련된 과정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역사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앞으로 미래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케 하며 확인해 준다”고 설명한다(Moltmann, 1988: 55). 그러므로 안식일은 과거와 미래, 즉 궁극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의 개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 상징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안식일과 죄로부터의 구속, 그리고 세상에서의 효과

앞에서 몰트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지속적인 역사적 행동으로 현재에도 미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안식일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념과 축하의 의미라면, 이 날은 현재의 시간 속에 해방의 역사를 불러 넣어주는 하나님의 의지의 확신이기도 하다. 러쉬두니(Rousas Rushdoony, 1973: 136)가 서술했듯이 “안식일은 휴식과 구속과 해방의 날이다.” 그리고 이 안식은 창조주로부터 직접 내려진 명령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잘 알려진 유대인 학자이자 문화 해설자인 프래거(Dennis Prager, 1981: 54)는 안식일에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기계류의 사용을 제한한다. 프래거는 안식일에 여러 형태의 기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안식일에 아직도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출 20 : 2)”라는 성명서를 붙이셨다. 프레거에 따르면,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의 말씀은 이 해방의 개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레거의 주장처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그들의 백성에게 제도로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안식의 당위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인간의 타락은 땅 위에 저주를 가져왔고 이것이 사람의 노동을 어려운 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미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창 3: 17-19). 타락 이후 고통스러워진 일은 인간에게 고단한 삶을 가져다주었고 이 휴식은 저주로부터 부분적인 구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프레임은 다음과 같이 구속의 주제를 요약한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 안식일 명령은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의 가혹함을 회상한다. 이 가혹함으로부터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다. 전도서 2장 9-11절은 사람의 수고를 ‘헛됨’이라 말하고 시편 90편은 비슷한 세상의 수고와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 악인에게는 실제로 진정한 평강이나 안식이 없지만(사 48: 22),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구속의 언약과 축복으로 안식을 주셨다(시 127: 2). 예수님은 그에게로 오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마 11: 28),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영광을 얻은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신다(계 14: 13) (Frame, 2008: 543).

하나님의 안식은 일시적으로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저주를 풀어 주며, 이는 그들의 일에서 가장 값진 보상을 상징하는 휴식인 것이다.¹⁰⁾ 그리고 이 안식일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규례에 반대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그는 언제나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셨으며(눅 4: 16), 율법을 파괴하려고 오지 않았다고 선언하시며 안식일을 파멸 시키거나 폐지하지 않으셨다(마 5: 17).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셨다는 사실이다(마 12: 8) (Beeke, 2006: 115).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안식일의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선언하신다. 마태복음 11장 28-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안식일에 ‘멍에’가 금지된 바리새인들의 멍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멍에’는 매우 다른 멍에의 의미이다. 그것은 예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운’ 것이기 때문이다(마 11: 30) (Beeke, 2006: 116). 그는 구속의 성취로서 안식을 약속하며 그의 은혜는 “우리의 눈을 열고 죄의 열병을 꾸짖으며, 우리를 고통스러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며, 악마와 그 군대를 이기고 죄로부터 짓밟혔던 모든 것을 회복하며,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병을 치유한다(Beeke, 2006: 116).” 그러므로 안식일의 목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보이고 선포하는 것이다(Beeke, 2006: 117).

복음의 은혜 아래서, 안식일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의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 계속되고 있다. 가네(Roy Gane, 2011: 14)는 이 신약에서의 변화를 안식일을 통한 성화로서의 해방과 관련된 거룩함으로 표현한다. 유월절 어린 양(고전 5: 7)에 의해 새로운 삶으로 해방된 거룩한 백성(벧전 2: 9)이기 때문에(고전 6: 11; 살전 3: 12-13), 창조주께 영광 돌림(계 14: 7)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안식일을 우리의 거룩함의 표징이라고 주장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히 4: 9)”라고 확신하며 안식일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다가올 영원한 주의 나라의 표징이고, 아직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저명한 20세기 유대인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셸(Abraham Heschel, 1951: 73)은 안식일을 “다가올 세상의 예시”로서 구속의 완성을 확장하기 위한 예고편이라 표현한다. 또한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믿는 자들의 마지막 보상의 표식으로 ‘안식일의 휴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의 예언으로 대 서사시를 마치고 있다(사 65: 17).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며 주의 백성의 노동은 저주로부터 완전히 구속될 것을 선포하며 그 다음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는 약속을 확신한다. 이 약속된 안식에 대하여 개핀(Richard Gaffin, 1986: 39)은 그의 용어해석을 통해 확신한다. 개핀은 ‘종말론적 구속과 안식’은 하나님 창조의 안식의 의미와 같은 것임을 밝혀 후자는 단순히 전자의 모델이 아님을 주장한다. 즉, 성경에서는 창조 직후 시작된 ‘하나님의 안식’과 함께 모든 것이 완성되고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안식’이 하나의 같은 개념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의 언약에서 약속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번영과 기쁨을 기대하며, 창조의 아름다움과 구속의 은혜를 베푸는 자비에 있어서 창조주의 선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가 주시는 안식의 주인공으로 모시고, 안식일은 이 진리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주며

10) 프레임은 “이 구속적 휴식의 의미는 특별한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에 의한 지상의 나머지 부분이다... 안식일의 주된 의미가 죄로부터의 휴식을 상징한다면, 그것은 칼빈의 ‘안식일은 이제 폐지되었다’의 언급이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상징의 의미가 현실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며 안식일의 상징성을 강조한다(Frame, 2008: 543-44).”

소망을 주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이미 성취 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속약속의 표식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이 끝났음을 축하한다. 이 날은 그의 작품의 신묘막축한 아름다움을 깊이 묵상하며,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는 날인 것이다.

III. 아름다움의 신학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숨을 쉬며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날이다. 몰트만은 이에 대하여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생태적이다. 또한 미적 측면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Moltmann, 1972: 5). 즉 아름다움은 인간의 영혼을 위한 휴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아름다움의 즐거움이 중요한 것이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처럼 인류의 예술적 창조성도 기념한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지어지지 않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제정되었다면(막 2: 27-28), 안식일은 인간에게 예술적 표현을 위해 기회를 주며, 일로부터 그들에게 쉼을 얻게 해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신성한 이미지를 가능케 한다. 베르자예프(Nicholas Berdyaev, 1950: 218)의 주장처럼, “인간의 창의력은 인간의 주장이나 권리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와 부르심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에 대한 반응으로 인간의 창조적 역할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창조성은 예술 안의 미적개념으로 이해된다.

오늘날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엄청난 욕구가 있다. 그리고 기독교 미학신학은 쉽지 않은 도전들에 직면해있다. 미국의 저명한 음악신학자인 제레미 벅비(Jeremy Begbie)는 현 시대의 미학경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관찰하고 통탄한다; 칸트파의 숭고함(Kantian sublime)의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ian) 철학의 심미적 영역을 비하함과, 과장된 문화는 아름다움을 상품화하고, 가부장적 착취의 흔적으로서의 페미니즘 비평과, 현대 예술의 반미학적 성격, 그리고 아름다움의 진실을 경시하고 행동을 유발하는 감정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많은 화가들과 작곡가들이 그들의 직업을 잃을 것이라고 예견되어지고 컴퓨터가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포용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가 요구하는 예술적 창의성은 다른 지적능력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마음과 관련 있는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예술의 아름다움을 지켜내는 것은 이처럼 심각한 도전의 홍수에서 거대한 작업으로 남아 있다. 하르트(David Bentley Hart)는 수사학 승화에 대해 의심스러워하고 끊임없이 파괴적인 붕괴로 운명지은 일부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에 대항하여 그의 <무한한 아름다움> 에서 통렬한 비판을 하며 이렇게 묻는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폭력이나 속임수가 없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움’이 대안으로 여겨지는 권력의 전략에 이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 할 수 있는가?(Hart, 2003: 4-5)... 기독교의 평화와 복음 진도자는 그 평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미적으로 수사학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복음주의적 호소의 ‘재능’은 평화로운 몸짓인가, 아니면 설득자체를 설득하기 위해 폭력에 맞서 숨기고 꾸미는 가장 독창적인 전략인가?!!)

위 현상의 뿌리는 다름 아닌 인간의 ‘자율’이다(신국원, 2005: 102). 자아를 향하는 이 시대의 진보는 창세기의 타락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에덴의 정원에서 아담과 이브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은 아심이니라(창 3: 5)”라는 유혹에 현혹되어 ‘신성한 나무’에서 돌아서서 ‘선한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를 택한다. 빛나는 선악과 속에 아담과 이브에게 끌렸던 것은 단순한 열매의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습과 직면함으로 끝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빛이었다. 웬햄(Gordon Wenham, 1987: 63)은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잠 1: 7)”임을 저버리며 인간의 자율권을 주장하려는 욕망이라고 해석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의 제약을 버리려는 현대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의 근원이며 DNA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모든 질서에서 아름다움의 총만함을 발견하는 대신, 자율적인 자아는 자신의 의미를 찾아 해매에게 되도록 내버려졌다.

그러나 비록 인간이 타락하여 죄 중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친히 제시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들 속에 특별히 ‘안식일’은 이 땅에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구속의 표적과 언약을 통해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예표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인간의 타락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 하나님의 창조에 기초한 아름다움을 관찰하고 그 신학적, 미학적인 의미를 엿볼 것이다. 또한 창조된 모든 아름다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즉 창조주의 웅장한 광채를 반영하고 이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근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희망으로서의 아름다움이 고난이나 억압으로부터의 휴식으로서의 안식일 개념으로 검토되어 인간의 예술의 참된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 할 것이다.

1. 창조의 아름다움

11) 하르트는 그의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론(ontology)에 뿌리를 둔 평화의 진도자로서의 기독교적 표현에 대한 니체의 공격을 지적한다. 니체는 기독교 문화를 향해 “가장 저속하고 쇠퇴 한 상태에서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권력을 거부하는 것으로, 투쟁의 부정으로, 완전한 평화의 진도자로서, 스스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만, 더 무서워지고, 무적화 된다.”고 공격했다(Hart, 2003: 148-149, 202).”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의 6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 4, 10, 12, 18, 21, 25, 31)”라고 여러 번 읽게 된다. 창조의 아름다움이 좋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발타자(Hans Urs von Balthasar)는 “아름다움이 없는 세계는... 좋은 것 또한 힘을 잃어버리고 왜 그 좋음이 수행 되어야만 하는지 스스로 증거한다(Balthasar, 1982: 19)”고 역설적으로 그 중요성을 드러낸다. 하나님이 어둠의 혼돈에 빛을 비추시자 어둠과 빛의 경계가 주야로 구별되기 시작하였고, 형태가 없는 혼돈에 조화가 생겨났다. 맥코믹(Patrick McCormic, 2012: 15)은 “형상이 없는 황무지와 어두운 심연이 풍부하고 다양한 삶으로 가득 찬 잘 정돈 된 우주로 만들어졌음”을 강조하며, 이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개별적인 부분들과 전반적인 대칭과 조화에서 처음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창조의 아름다움은 의심할 여지없이 “구성들의 조화와 일치, 밝음 또는 광휘, 완전성 또는 온전함, 그리고 그것을 묵상함에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Begbie, 2011: 84). 또한 아름다움은 서로 다른 것들 간에 형태, 방식, 수량, 가시적 경계와 디자인들의 동의 또는 합의하는 것으로, 이 현상들은 규칙, 질서, 통일성, 대칭성, 비율, 조화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Edwards, 1960: 3). 즉, 창조주의 피조물의 아름다움은 ‘조화로운 온전함’을 드러내며, 이 완벽함은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한다.

다이어니스(William Dyrness)는 사람이 창조의 조화로움에 대해 생각할 때 그리스 철학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Dyrness, 1985: 420-421). 피타고라스인(Phythagoreans)들은 아름다움을 “질서와 비례가 아름답고 적합하다”라고 정의했고, 플라톤(Plato)은 “정도와 비율의 유지는 항상 아름답다”며 “정도의 부재는 추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아름다움은 규모와 질서 정연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름다움의 주된 형태는 ‘질서, 비례 및 명확성’”이라고 동의했고, 스토아 학파(Stoics)는 “신체의 아름다움은 부분과 상호간과 전체에 대한 팔다리의 비율에 있다”고 이를 지지한다(Tatarkiewicz, 1972: 167). 다이어니스는 이 모든 것은 우주적 질서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가깝다고 주장한다(Dyrness, 1985: 422). 그러므로 자연의 완전은 그 질서, 대칭, 일치, 조화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는 이 조화로운 아름다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안식일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피조물은 그 자체로 즐겁고 유쾌하다. 창세기 2장에 창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아름다움을 즐거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에덴에 심어놓으신 정원은 특히 아름다운 걸작품이었다. ‘에덴’은 ‘비옥 한 평원’을 의미하며 히브리 단어 ‘기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에덴의 정원은 ‘기쁨의 정원,’ ‘즐거움의 정원,’ 또는 ‘낙원’을 의미한다(Suggs, 1992: 12). 에덴은 풍요롭고 물이 풍부하며

사랑스럽게 손질 된 정원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특별히 창세기 2장 9절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다. 맥코믹은 이를 “눈과 미각을 위한 즐거움의 조화(McCormick, 2012: 17)”라고 표현하고 그루쉬(John Gruchy, 2008: 111)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사람들을 끌어당겨 즐거움을 주고, 그들 안의 기쁨과 경이를 깨우고, 창조를 향한 열망을 창조한다”라고 묘사한다. 이렇듯 타락 전 창조주의 피조물은 완벽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는 시편 89편을 설교하면서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다: “나무와 식물 그리고 꽃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지구의 얼굴을 아름답게 꾸며 반짝거리는 것들로 박아주신 것은 즐거운 일이다. 특히 인간의 몸의 아름다운 구조와 그 완전함이 놀라우며, 달과 별의 아름다움은 훌륭하고, 가장 높은 하늘의 아름다움은 탁월하며, 천사들과 성도들의 빛은 영광스럽다(Turnbull, 1958: 77).” 에드워즈에게는 창조의 주된 신학적 목적이 즐겁고 유쾌한 ‘하나님의 영광’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임을 암시한다. 칼빈이 히브리서 11:3절에 대한 자신의 주석에서 했던 표현처럼, “세계는 하나님의 거울(the mirror of divinity)”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the theater of God’s glory)”이라 표현될 수 있다(Calvin, 2005: 266). 몰트만에 의하면 이러한 칼빈의 표현이 오로지 창조된 세계가 지니는 “존재의 명시적 가치(Moltmann, 1972: 18-19)”를 나타냄을 확신한다. 즉 창조하심으로 기쁨을 얻는 창조주는, 피조물이 비추는 아름다움의 그 근원으로써 자신의 아름다움을 창조를 통하여 존재케 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손호현, 2009: 173).

2.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술을 알려면 그 아름다움들의 자체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한다. 카톨릭 학자인 나보네(John Navone)는 하나님을 행복한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선포한다.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시라는 역사적인 계시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 신학은 창조주께서 먼저 모든 피조물을 알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고 선한 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한다고 가정한다. 창조주, 곧 행복 그 자체이신 분은, 진리를 알고 선을 사랑하며 아름다움을 즐기는 분이시므로, 결과적으로 창조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즐길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시선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만물의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창조주를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함으로써 행복 그 자체와 교제 할 수 있는 것이다(Navone, 1996: v).

그러므로 나보네는 창조주의 진리와 선함, 기쁨과 즐거움, 아름다움을 긍정함으로 피조

물로써 조물주와의 관계의 토대를 세운다. 그리고 이 토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 속에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영광은 삼위 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즉, 하나님은 삼위 일체 존재의 영원한 진리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또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학적 개념은 아름다움의 특성을 그 무엇보다 잘 나타낸다. 포홀레(Joseph Pohle)는 “진정한 삼위일체에서의 절대적인 일치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으로 절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Pohle, Preuss, 2007: 270). 바르트(Karl Barth, 1957: 661)는 또한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그의 아름다움의 비밀이다”라고 확신한다. 이에 다양성 또는 다중성의 요소는 신성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의 개별성으로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라 표현한 나보네는, 그의 묘사에서 하나님 자신은 온전히 영광스럽고 아름답도록 절대적이고 독특한 방법으로 화합의 요소를 나타냄을 주장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자신을 반영하는 우주를 창조한다. 삼위 하나님의 외적 공유는 창조에서 시작된다. 인간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주는 이를 반영한다, 그리고 구속역사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계속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공동체를 존재하게 하실 때 구속역사가 계속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말씀의 성육신 안에서 강화되었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령의 성전에서 성숙된다. 그리고 영광스럽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완성, 즉 하나님의 왕국, 천상의 도시의 새로운 천국과 소통한다(Navone, 1996: 43-44).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으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와 그분의 형상을 나타내는 밝은 빛”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된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으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한다. 예수님은 아름다움 그 자체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서 “그리스도는 그의 진리를 아시고 그의 선하신 것을 사랑하며 그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와 소통하신다(Navone, 1996: 43-44).” 나보네의 성경 요약은 이의 중요성을 잘 나타낸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즐거움을 강조한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쁨의 충만함(3: 29)이었다(15: 11). 그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다(16: 20). 예수님은 새로운 탄생, 새 생명의 기쁨과 깊이 관련이 있다(15: 1). 그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16: 22). 그분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16: 24).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1: 14; 17: 17),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요일 4: 8, 16)을 라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린다. 아름다움 자체가신 그 분은 모든 인류에게 영광과 은혜와 진

리와 기쁨으로 나타난다(Navone, 1996: ix).

나보네는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창조의 아름다움 그 자체가신 분의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신학과 영성에 영감을 불어 넣는다(Navone, 1996: ix)”라고 강조한다. 또한 위대한 교부 다마스쿠스의 존(John of Damascene, 2003: 101)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형상이었고, 그 자신의 살아있는 상, 그의 자연적이고 변화 할 수 없는 영원의 이미지”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의 이별 설교는 아름다움의 신학의 다른 요소, 즉 종말론적 목표를 가리킨다(요 14-17).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목숨을 바칠 때 그의 삶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의 삶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요 17). 나보네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한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사랑에서 드러난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자애로운 사랑은, 만물의 참된 아름다움과 영원한 기쁨을 주는 창조주의 은혜와 부르심에서, 우리를 삶과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움 그 자체로 이끌어준다(Navone, 1996: vi).”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몸에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을 향한 인간의 삶을 빛어간다. 성령의 삼위 일체 인 제 3인은 아들의 완전한 계시자이다. 이 성령께서는 ‘화합의 영’으로, 유일무이한 특수성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시킨다. 즉, “창조된 개개의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여 아버지와의 구속관계로 가져오으로써 참된 존재로 풀어내는 것이 성령의 임무인 것이다(Gunton, 1993: 189).” 이리므로 성령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 분으로 아들 안에서 성취하시며 미래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름답다(Begbie, 2011: 92). 백비는 이 아름다움을 성령의 종말론적 소망으로 풀어나간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인지하고 있는 아름다움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광을 기대하면서 탄식하며 부패에 속박되는 피조물의 한 가운데서 여전히 ‘성령에 의해 주어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맛보기’인 것이다(롬 8: 20-22). 그러므로 우리는 숨을 죽여 눈부신 산의 경관을 순간을 붙잡고 그 순간을 얼어 붙이려고 노력해서는 안되며,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름다움은 그 나라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이다. 우리는 그것의 일시적임을 슬퍼하지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기쁘게 생각한다(Begbie, 2011: 92).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영원한 희망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름답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기쁨을 성령 안에 나누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은

‘즐거움 경험’이라 말한다(Navone, 1996: 75). 필자는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y, 1992: 402)가 자신의 소설 <백치>에서 표현한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의 유명한 표현에 한 단어를 덧붙여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라고 완성한다. 인간이 영원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얻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통해서이기 때문이다.

3. 아름다움과 안식의 예술을 향하여

궁극적 아름다움의 본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를 초월하여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아름다움의 의미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영원을 향한 열망’을 불러 일으킨다(Chittister, 2001: 179-80).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사역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이라면, 그 소망 안에 인간의 예술의 활동은 잠시나마 찬란한 영원의 나라를 맞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치티스터(Chittister)는 아름다움의 초월적 힘을 이렇게 묘사한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의식의 높이까지, 평범한 일상을 신비적으로, 잠시의 방편을 벗어나 끝없는 진실로 이끌어준다. 아름다움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지탱해 준다. 진부한 세상의 어리석음이 깊어도, 결국 아름다움은 우리 자신의 영혼을 관통하여 값 싸고, 진부하고, 모방적이고, 과도하고 잔인한 세상의 추악함을 뚫을 수 있다. 아름다움이 나오는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본 것은 깊은 영적경험이다.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소리친다. “자세히 [보고 느껴라], 아직 [당신이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 더 있다(Chittister, 2001: 179-180).”

즉, 예술적 아름다움은 인간의 삶을 억압이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예술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눈, 귀, 그리고 결국 끈고한 영혼이 휴식을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치티스터는 “투쟁의 한 가운데, 깊은 어두움, 추악함의 늪지대에서 아름다움은 그것을 실현한다”고 확신한다(Chittister, 2001: 179).

그러나 세속적 심리학에서도 이 강력한 예술의 유혹의 힘을 말하고 있다.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예술은 가장 오래되었고 아직도 가장 깊숙이 느껴지는 문화적 포기들에 대한 대리적 만족들(Substitutive Satisfaction)을 제공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예술은 인간이 문명을 위해서 치른 희생과 인간 자신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효과적으로 화해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Freud, 1961: 17). 프로이트는 예술의 이러한 심리학적 기능을 “온화한 마취제”에 비교한다(Freud, 1961: 31). 신학자 펠트너(Günther Pöltner)는 이에 대하여 “아름다움은 일종의 마취제가 되며, 예술은 대리적 만족과 보상의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예술의 마취제적 역할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다(Pöltner, 1985: 9). 이는 창조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들의 자율성에 의해 주도되었던 예술의 역사를 생각하면 당연한 시각일 것이다. 예술을 통해 인간들은 타락으로부터 온 고뇌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불순종 후에 아담과 이브가 결국 발견 한 것처럼 이 ‘탈출’은 행복과 자유의 삶으로 이끌지 않았고 오히려 빛과 쉬운 명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아름다움을 정의 할 수밖에 없고, 매력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의 매력을 받아들이며, 이 매혹적인 아름다움은 자신을 궁극적인 불행과 파괴로 유혹하는 수단이 되어왔다(Navone, 1996: vi).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이 끝난 것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그들이 만드는 또는 즐기는 예술작품의 복잡한 아름다움을 깊이 생각하여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예술가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초월성에 내어 맡길 것’을 제안한다. 인간의 자율과는 달리, 아들러(Mortimer Adler, 1981: 129-30)는 ‘아름다움’은 인간을 묵상하고 스스로를 초월하여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자신을 초월한 휴식’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머독(Iris Murdoch)은, 인간은 아름다움으로 산만해지거나, 아니면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양도하여 이기심을 버린다고(unselfed) 설명하며, 자신을 양도하고 내려놓음이 버겁거나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일이라고 강조한다(Scarry, 1999: 112-13). 자기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은 맥코믹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확신의 전제조건인 것이다(McCormick, 2012: 7).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영향력 있는 러시아 철학자 니콜라이 베르자예프(Nicolai Berdyaev)는 그의 작품 <꿈과 실제>에서 창조, 죄, 구속에 대한 의미를 예술의 자아초월성에 빗대어 반영하고 있다.

인간이 외적인 영향으로부터의 억압과 노예적 삶을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창조적 행위 안에 있다. 창조적인 행위는 대상에 대해 ‘자신이 아닌’ 것보다 주체인 ‘자아’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중심의 지붕에 부딪히게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 높은 곳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창조의 경험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준비 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예시(foreshadows)한다(Berdyaev, 1950: 219).

베르자예프는 자기 자신이 중심일 수밖에 없는 예술 활동의 성질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초월해야만 하는 본질의 관계를 잘 설명한다. 이 관계는 리피르(Paul Ricour)의 현상학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리피르는 미학적 상징이란 ‘수여하는 것’과 ‘부여받는 것’이라는 이중적 측면을 지님을 관찰한다(Ricour, 1974: 288; 손호현, 2009: 105). 즉 미학적 상징은

내가 부여하지 않은 의미를 추가로 수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부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사유의 측면 안에서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Ricour, 1974: 288).” 그리고 필자는 이 부여된 의미를 창조주가 예술의 아름다움 안에 주신 신비와 그의 아들과 연합함으로 나타나는 진리의 초월성이라 표현한다.

나보네는, “진실하고 거짓된 친구, 그리고 진실과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유사하다”고 탄식하지만, 결국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이끌어 내는 것은 그에게 무엇이든 간에 그 아름다움은 기쁘고 즐겁다”고 확신한다(Navone, 1996: vi). 하나님은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이시며,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창조주님과 그의 구속사역이 궁극적인 아름다움이심을 인정함으로써 옴으로 그 밝은 빛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빌라데서(Richard Viladesau, 1999: 213)는 “영적 영역에 대한 슬픔 즉, 진정으로 좋은 것에 대한 경험의 부족, 기록한 것에 대한 ‘맛’의 부족이, 물질적 쾌락을 추구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의 가치에서 멀어진다”고 지적한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함으로써 예술의 진정한 아름다움의 원천을 이해할 수 있고, 비로소 이기심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이 보이며, 그들의 예술적 능력으로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20세기의 위대한 작곡가 메시앙(Olivier Messiaen)은 음악의 초월성이 다른 과학적 또는 철학적 설명보다 예수의 성육신과 그의 신비로운 영원과 시간의 연합을 이해하는 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적 연구, 수학적 증명, 측정된 생물학적 실험은 우리를 불확실성으로부터 구하지 못했다. 반대로 그들은 현실로 믿어지는 것 위에 또 다른 새로운 현실을 끊임없이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무지를 증가시켰다. 사실 유일한 진실은 다른 순서로부터 온다... 다른 존재(Being)와 만남으로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거쳐야 한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들로부터 도약을 의미한다. 이상하게도 음악은 우리를 그림으로, 반사(reflections)로서, 상징으로 준비시킨다. 음악은 시간과 공간, 소리와 색깔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통일로 이끄는 대화이다. 시간은 공간, 소리는 색상, 공간은 겹쳐진 시간, 소리, 색상의 복합체이다... 음악가는 이러한 기본 아이디어를 통해 어느 정도 다음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다. 그리고 성 토마스(St. Thomas)가 말한 것처럼: 음악은 우리 자신을 ‘진리의 초과(an excess of truth)’로 인도 시킬 날까지 ‘진실의 불이행(default of truth)’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데려간다. 그것은 아마도 음악의 중요한 의미이자 또한 방향적인 의미일 것이다(Messiaen, 1978: 10).

메시앙은 고딕성당(Gothic Cathedral) 안의 스테인 글라스(Stained Glass)를 보며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의 초월성을 깊이 묵상했다. 메시앙은 갖가지 색의 유리창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구와 태양 너머의 단어, 생각, 개념을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주위를 돌고 있는 수천 개의 별을 초월한 것을 보여준다(Röbber, 1986: 41)”고 고백한다. 그는 실제로 음악을 시작과 끝이 있는 ‘알파요 오메가인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고, 그의 음악작곡 경력의 70여 년 동안 20 세기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일부를 남겼다. 그의 곡들은 하나같이 신비하고 역동적인 리듬과 생생하고 다채로운 화성으로 특징 지어지고, 암펠트(Nicholas Armfelt)는 “메시앙의 음악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음악의 모든 것이 더 큰 맥락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만든다... 모든 움직임 뒤에는 정적의 인식, 모든 소리 뒤에 침묵에 대한 인식, 그리고 모든 측정된 시간 뒤에 ‘영원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표현했다(Armfelt, 1965: 857). 메시앙은 창조주의 창조와 구속사역, 그리고 그의 영원성을 깊이 묵상하여 이를 음악으로 그의 시대 사람들과 교류하였고, 많은 신학자들의 우려의 대상인 반기독교사상이 만연한 모더니즘의 중심에서, 모던음악 테크닉으로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을 전 세계에 울려 퍼트렸다. 그의 음악은 많은 신학자들과 후대의 기독교 음악학자들에게 “모더니즘의 마법(re-enchant of modernity)”이라 불리며 메시앙의 음악의 근원이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한다(Sholl, 2011: 189).

바르스(Jerram Barrs, 2013: 28)는 “예술적 교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술이 단순히 자기 자신의 표현 일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술의 역할은 이 세상의 현실을 바로 보고 나란히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접촉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란 의미이다. 즉, 예술 활동은 자기중심을 벗어나 자신의 예술적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다른 예술가들 안에 부여주신 창조주의 은사의 다양함과 찬란함을 찬양하며, 자신의 부여받은 아름다움의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며, 타인의 삶의 안식과 소망의 풍요로움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사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안식일에 그러하듯,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약속하는 것이다(엡 1: 6).

IV. 결론

순수예술이 계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의 예술은 인간의 자율성을 주장할 가장 강력하고 고유한 능력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 그리하여 예술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창의성’의 혁명의 실용성 안에 예술적 디자인을 담당하며, 기계에 의해 위협받는 인간의 가치를 보존케 하고 기계의 폭주를 제어할 중요한 ‘도덕적 나침반’들 중 하나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함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 포스트모던의 예술적 민낯이 자율성으로부터 오는 혼란과 투쟁과 고통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사람들은 예술의 진정한 역할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예술에서 끊임없이 아름다움을 갈망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예술의 진정한 아름다움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아름다움이란 것은 인간의 영혼의 희망을 키우고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휴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여전히 아름다움에 목마르다. 만약 예술이 자신의 창조주와의 관계의 회복과 영원한 주의 나라의 예시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예술이 미적으로 그 길을 잃은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안식일은 인류가 죄에 빠지기 전에 인류에게 주어졌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 된 계명(출 20, 신 5)으로서, 그것은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믿는 자들을 기다리는 기쁨의 예표이다. 안식일은 창조를 기억하고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며, 고통과 죄가 없는 영광스러운 세상의 그림을 주는 종말론적 기관인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 직후 안식함으로써 그가 창조의 활동을 끝내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으며, 인간에게 궁극적인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영원한 창조주임을 상기시켜 주셨다. 그는 완성된 피조물을 보시며 기뻐하셨으며, 지금 이 시간도 그의 백성들에게 창조의 아름다움과 구속의 자비에 있어 자신의 선행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안식을 기념하라고 부르신다. 이 기념과 축하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속한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주신다.

예술을 통해 인간의 죄스러운 본성으로부터 이 천상의 휴식을 맛보려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을 검토하는 것이 절대적이다. 안식일은 창조하고, 축복하고, 인도하고, 유지하고, 성화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기념한다. 아버지과 아들과 영을 통해 “임마누엘 -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마 1: 23)”을 기억하게 하고, 즐겁고 기쁜 휴식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의 다가올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상상하며 기뻐한다 (Moltmann, 1978: 40). 안식일은 백의 이념적 아름다움의 해체에 대한 하나님의 극적인 응답인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단행본

- Adler, Mortimer J. (1981). *Six Great Ideas*. New York: Macmillan.
- Allender, Dan B. (2009). *Sabbath*. Nashville: Thomas Nelson.
- Almut Röbler. (1986). *Contributions to the Spiritual World of Olivier Messiaen, with Original Texts by the Composer*. Trans. Barbara Dagg, Nancy Poland and Timothy Tikker. Duisberg: Gilles and Francke.
- Barth, Karl. (1957). *The Doctrine of God. Church Dogmatics*. Vol. 2. Edinburgh: T. & T. Clark.
- Beeke, Joel R. (2006). *Puritan Reformed Spirituality*. Darlington, U.K.: Evangelical.
- Begbie, Jeremy S. and Stephen R. Guthrie. (2011). *Resonant Witness: Conversations between Music and Theology*. CICW Liturgical Studies Series. Grand Rapids: Eerdmans.
- Berdyaev, Nicolas. (1950). *Dream and Reality: An Essay in Autobiography*. London: Geoffrey Bles.
- Calvin, John. (1958). *Calvin Commentaries*. Trans. Joseph Haroutunian. Philadelphia: Westminster.
- _____. (1960).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Ford Lewis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Westminster.
- _____. (2005). *Commentaries on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Trans. John Owen. Grand Rapid: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 Carson, D. A. (Ed.) (2000). *From Sabbath to Lord's Day: A Bibl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Investigation*. Eugene, OR: Wipf & Stock.
- De Gruchy, John W. (2008). *Christianity, Art, and Transformation: Theological Aesthetics in the Struggle for Jus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wards, Jonathan. (1989). *Ethical Writings*.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series 1, vol. 8.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60). *The Nature of True Virtue*.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Farley, Edward. (2001). *Faith and Beauty: A Theological Aesthetic*. Hants, U.K.: Ashgate.
- Frame, John M. (2008). *The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A Theology of Lordship*. New Jersey: P&R.
- Gunton, Colin E. (1993). *The One, the Three and the Man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ns Urs von Balthasar. (1982). *Seeing the Form*. In vol. 1 of *The Glory of the Lord: A Theological Aesthetics*. Trans. Erasmo Leiva-Merikakis. San Francisco: Ignatius.

Hart, David Bentley. (2003). *The Beauty of the Infinite: The Aesthetics of Christian Truth*. Grand Rapids: Eerdmans.

Heschel, Abraham Joshua. (2005). *The Sabbath: Its meaning for Modern Ma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_____. (1951). *The Sabbath*.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Begbie, Jeremy. (2011). (Ed.) Jeremy Begbie and Steven R. (2011). "Created Beauty: The Witness of J. S. Bach." In *Resonant Witness: Conversations between Music and Theology*, Guthrie. Grand Rapids: Eerdmans.

Jerram Barrs. (2013). *Echoes of Eden: Reflections on Christianity, Literature, and the Arts*, Weaton, IL: Crossway.

John of Damascus. (2003). *Three Treatises on the Divine Images*. New York: St. Vladimir Seminary Press.

Jürgen Moltmann. (1978). *The passion for life: A Messianic Lifestyle*. Minneapolis: Fortress Press.

_____. (1972). *Theology of Play*. New York: Harper & Row.

김선영 (2018). **예술로 읽는 4차 산업혁명**. 성남: 별출판사.

[Kim. S. Y. (2018). *Art with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ung-nam: Byul Pressing.]

Kline, Meredith G. (2006). *Kingdom Prologue: Genesis Foundation for a Covenantal Worldview*. Eugene, OR: Wipf & Stock.

Lowery, Richard H. (2000). *Sabbath and Jubilee*. St. Louis: Chalice.

Mc Cormick, Patrick T. (2012). *God's Beauty: A Call to Justice*. Collegeville, MN: Liturgical.

Millgram, Abraham E. (1944). *Sabbath: The Day of Delight*.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Moltmann, Jürgen. (1985). *God in Creation: An Ecological Doctrine of Creation*. Trans. Margaret Kohl. San Francisco: Harper & Row.

_____. (1978). *The Passion for Life: A Messianic Lifestyle*. Philadelphia: Fortress.

_____. (1972). *The Theology of Play*. New York: Harper & Row.

Navone, John S. J. (1996). *Toward a Theology of Beauty*. Collegeville, MN: Liturgical.

Norman, Judith, Alistair Welchman, and Christopher Janaway. (Eds.) (2011). *The World as Will and Representation*. Vol. 1. 3rd e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hle, Joseph and Arthur Preuss. (2007). *The Divine Trinity*. Kessinger.

Prager, Dennis, and Joseph Telushkin. (1981). *Nine Questions People Ask About Judaism: The Intelligent Skeptic's Guide to Judaism*. New York:

Simon & Schuster.

Ricour, Paul. (1974). *The Conflict of Interpretations*, (Ed.) Don Ihde.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Rushdoony, Rousas John. (1973). *The Institute of Biblical Law*. Craig.

Scarry, Elaine. (1999). *On Beauty and Being Jus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chopenhauer, Arthur. (2000). *World as Will and Representation I*. Trans. E.F.J. Payne. New York: Dover Publications.

Schwab, Kause. (2016).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Economic Forum.

신국원 (2015). **니고데모의 안경: 쉽게 풀어 쓴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서울: IVP.

[Sin, G. W. (2015). *Nicodemus' Glasses: A Story of Christian Worldview*. Seoul: IVP.]

손호원 (2009). **아름다움과 악: 제 1권 신학적 미학 서설**. 서울: 한들출판사.

[Son, H. H. (2009). *Beauty and Evil: Book 1 Theological Aesthetics*. Seoul: Handle Publishing.]

Suggs, Jack. (Ed.) (1992). *The Oxford Study Bible: Revised English Bible with the Apocryph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Treier, Daniel J., Mark Husbands, Roger Lundin. (Eds.) (2006). *The Beauty of God: Theology and the Arts*.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Turnbull, Ralph G. (1958). *Jonathan Edwards, The Preacher*. Grand Rapids: Baker.

Viladesau, Richard. (1999). *Theological Aesthetics: God in Imagination, Beauty, and A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Watson, Tony. (2017). *Sociology, Work and Organisation: Seventh Edition*. London: Routledge.

Wenham, Gordon J. (1987).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vol. 1. Waco, TX: Word.

정기간행물

Dyrness, William. (1985). Aesthetics in The Old Testament: Beauty in Context.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28, 420.

Gane, Roy E. (2011). Sabbath and Sanctification. *Journal of the Adventist Theological Society*, 22, 3-15.

Olivier Messiaen. (1986). Introduction to the Programme Booklet for Paris. in Almut Rössler, *Contributions to the Spiritual World of Olivier Messiaen*. Trans. Barbara Dagg and Nancy Poland (Duisburg: Gilles und Francke), 10.

Poe, Edgar Allan. (1850). The Poetic Principle. *E. A. Poe Society of Baltimore*, 1-6.

Tatarkiewicz, Wladyslaw. (1972). The Great Theory of Beauty and Its Decline.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Art Criticism*, 31, 165-180.

Robert Sholl. (2011). The Shock of the Positive. in *Resonant Witness: Conversation between Music and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Ed.) Jeremy S. Begbie and Steven R. Guthrie, 162-189.

Y. Bengio, A. Courville, and P. Vincent. (2013). Representation Learning: A Review and New Perspectives. *IEEE* (the world's largest technical professional organization), 1798-1828

인터넷 자료

“4 ways art is sculp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8). Retrieved from <https://www.weforum.org/agenda/2018/03/here-s-how-art-activates-the-fourth-industrial-revolution/>

“A Dissertation Concerning the End for Which God Created The World”, Retrieved from http://www.prayermeetings.org/files/Jonathan_Edwards/JE_A_Dissertation_Concerning_The_End_For_Which_God_Create.pdf (2013.5.31.)

“Arts Catalyst of Creative Organisation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7). Retrieved from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186/s40852-017-0072-1>

“Pietà (Michelangelo)”, Retrieved from <http://en.wikipedia.org/wiki/Pietà> (2013.5.31.)

논문초록

아름다움과 안식: 예술의 역할에 대한 신학적 고찰

인류의 예술에 관한 역사는 아름다움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갈망을 보여준다. 낭만주의 이후로 예술은 자기표현의 수단이었으며 이제 아름다움의 의미는 변했다. 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움을 위해 자신의 의지를 진리에 내어드리는 대신에, 예술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혼란과 투쟁과 고통을 표현되어지는 자율에서 오는 것이라는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그들에게 희망을 열어주고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찾아 해매고 있으며 여전히 그것에 목마르다.

이 연구는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의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땅과 하늘의 평화의 형태로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 미적 이론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안식일은 인류가 죄에 빠지기 전에 제정되었으며 (창 1),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어졌다 (출 20, 신5). 안식일은 즐겁고 아름다우며 영원의 쉼이 있는 날인 것이다. 그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창조주가 심어두신 기쁨의 예표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기록히 지키며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구속사역이 끝난 것을 기념하며 기쁨으로 그의 영원한 나라를 기대한다.

안식일의 한 측면으로서, 예술은 그 아름다움을 통해 이 세상의 억압된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다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본서는 안식일과 아름다움의 경험은 미래 지향적이며, 그 종말론적 소망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타나고, 창조주와 그의 아들과 성령의 구속사역 안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 할 수 있음을 관찰해 나갈 것이다. 안식일을 기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예술작품의 복잡한 아름다움을 깊이 생각하고 내재시키고 초월하시는 창조주의와 친교에서 새롭게 된다. 그들은 예술 속에 표현되는 창조주의 아름다움의 찬란함을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와 함께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그들의 예술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초월성을 덧입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안식일의 핵심교리를 통해 아름다움과 예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여 그 본연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안식일 신학이 창조와 구속을 중심으로 관찰되어질 것이며, 두 번째 장에서는 안식일의 핵심 교리에 기초하여 미학 신학과 예술의 역할이 연구되어질 것이다.

주제어: 아름다움과 신학, 안식일 신학, 기독교 미학, 창조, 예술의 초월성